

# 고도 산업경제에서 국민들의 사회후생에 대한 거시경제변수 역할에 관한 문헌 연구

김 종 권\*

## Abstract

이 논문은 최근 들어 국민들의 행복감(happiness)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최근 연구논문들을 살펴보면, 미국과 영국의 경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행복감 수준이 정체내지는 줄어든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 이래 최근 들어 여성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행복감 상실의 가장 큰 주된 요인은 경기침체 등에 따른 실업률(unemployment)과 이혼 등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I. 서론

이 논문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사회후생 즉 국민들의 행복감은 측정이 가능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있어 왔다. 여기에 대하여 Warr(1980)과 Chen and Spector(1991), Konow and Earley(1999)에 따르면, 환경(circumstances), 목표(aspirations), 상대적 비교(comparisons with others) 등이 행복감과 연결되어 있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들이 지적하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행복감과 연결된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행복감과 관련하여 첫째 실업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특징(characteristics)들이 있다. 둘째 생활에서 나타나는 좋은 일과 나쁜 일들과 관련이 있다. 셋째 사람들이 속하여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넷째 상대방 배우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 다섯째 건강상태와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행복감과 관련된 데이터에 대하여 Fordyce(1985), Larsen et al.(1984), Argyle(1989), Watson and Clark(1991), Myers(1993), Pavot and Diener(1993) 등이 개인적으로 느끼는 행복감에 대하여 계량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r = h(u(y, z, t)) + e \quad (1)$$

\* 신홍대학 세무회계학과

여기에서  $r$ 은 ‘매우 행복’부터 4단계로 이루어지고,  $u$ 는 효용수준(utility)를 의미하며  $h$ 는 연속함수(continuous function)를 의미한다.  $y$ 는 실질소득,  $z$ 는 개인간의 특징(personal characteristics)이며,  $t$ 는 기간,  $e$ 는 오차항(error term)이다. 이들 연구를 토대로 살펴보면,  $h$ 함수는  $u$ 가 증가할 때 상승함을 알 수 있다.  $u$ 는 개인들이 느끼는 만족을 나타내는 효용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분석방법으로는 Kahneman et al.(1997)에서와 같이 probit 또는 logit 모형으로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에 있어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Easterlin(1974, 1995, 2001)이 있는데, 미국에서의 국민들의 행복수준에 대한 연구와 국민소득이 낮은 국가(poor countries)와 높은 국가(rich countries)에서 국민들이 행복수준이 같은지와 관련된 것이다. 한편 Hirsch(1976), Scitovsky(1976), Layard(1980), Frank(1985, 1999), Schor(1998), Keely(1999), Cooper et al.(2001), Ravallion and Lokshin(2001)은 행복감은 자신과 가까이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Easterlin(1974, 1995, 2001)은 1946년 이래 미국에서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행복이 높아진다는 가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한편 Oswald(1997)는 미국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1946년에 소득이 높은 계층의 39%가 ‘매우 행복’하다고 본 반면에 1957년에는 소득이 높은 계층에서 53%까지 ‘매우 행복’함이 높아졌음을 알아내었다.

Blanchflower and Oswald(2002)는 1970년대 초에는 ‘매우 행복’이 조사대상에서 34%에 달한 반면에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30%로 낮아진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여성들에게 있어서 같은 기간동안 36%에서 29%로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미국의 경우 백인들뿐만 아니라 흑인들에게서도 비슷한 현상을 보여 인종과 관련성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특이한 현상으로 같은 기간동안 여권이 신장되었음에도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한편 남성의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 모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행복감도 다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인층에 속할 경우에는 현저하게 줄어들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교육을 잘 받은 계층과 교육혜택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 계층으로 나누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두 집단 간에는 별다른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또한 197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결혼을 한 사람과 결혼을 하지 못하였거나 사별 혹은 이혼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결혼을 한 사람이 행복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미국에서와 같이 영국에서도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영국의 조사에는 1970년대 이후 매년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설문지에는 매우 만족과 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으로 나누었다.

Blanchflower and Oswald(2002)에서 미국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혼 및 직장 생활에 대한 불만족이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이 논문은 국민들의 사회후생 수준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남성과 여성소득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